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보고

1. 개요

▣ **2015. 2. 27., 3. 1.의 2회에 걸쳐 게시판 운영에 관한 제안 글 게시**

- 민감 사안 글은 단기간 게시 후 자진 삭제할 것을 제안
- 현재 조회 수[3. 3. 07:00 기준]

- 전체 회원 수 388명
- 2015. 2. 27. 게시 글 ⇨ 조회 수 317회
- 2015. 3. 1. 게시 글 ⇨ 조회 수 282회

▣ **제안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임**

- 취지에 공감하는 내용이 대부분임

▣ **자진 삭제를 예정한 게시 글이 게재되기 시작함**

- 회원들에게 제안이 이미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임

2. 구체적 반응

▣ **2015. 2. 27. 제안 글에 대한 반응**

- 댓글 1 ⇨ **관심 표명**[15.02.27. 08:26]

- 문체에 은근 중독성이 있어요. **다음 글 꼭 이어서 써주세요~^^**

- 댓글 2 ⇨ 공감[15.02.27. 14:27]

- 글 쓴 분의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합니다.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안 지켜준다는....

- 댓글 3 ⇨ 공감[15.02.27. 19:16]

- 법관들이라 **이 정도는 지킬 소양이 있을 거** 같아요.

- 댓글 4 ⇨ 공감[15.02.28. 05:52]

- 아 저도 이 사건 알아요. 보면서 이사야 떠올린 것도 똑같네요. 정보의 축적에 좀 문제가 생기더라도, 자유로운 분위기 유지를 위해서는 **퍼가기 금지 복사 금지 평 활용 등이 적극 이루어지는 수밖에** 없을 것 같네요

▣ 2015. 3. 1. 제안 글에 대한 반응

● 댓글 1 ⇨ 공감[15.03.01. 03:52]

- 좋은 고민 글 감사합니다. 원글님의 이사야에 대한 애정이 듬뿍 느껴지네요. 저도 유사시 외양간 버리기가 불가피하겠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**반성하고**, 소중한 공간을 지킬 수 있는 **대책 강구에 머리를 굴리게** 되는군요.

- 유스랑 다르다는 점은 공감합니다. 일단 유스는 사직해도 회원 자격이 유지되거든요. 전 개인적으론 반대 입장입니다만, 실명 활동으로 이미 친분이 있는 터라 그런 것 같아요. 한편 평 문화는 유스에도 드물지만 있기는 합니다.

- **개인적으로는 평할 권리는 당연한 글쓴이의 권리**라고 생각해요. **설령 댓글이 달려 있어도** 말입니다. 다만 운영진에게 평 권한을 주는 것은, 운영진이나 다른 분들 의견이 궁금하네요.

- 운영진에게 삭제, 검열 권한을 주는 것이니까요^^ 그렇다고 이사야 운영진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을 듯합니다만.

- 반대로 글을 삭제할 '의무'가 운영진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**여러 회원들이 댓글로 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다면 그때 운영진이 최종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**이겠네요.

- **원글님께서 급한 대로 평문화부터 제안하신 것 같고, 저도 당장 다른 수는 안 떠오르는데**, 다른 아이디어도 궁금합니다.

- 아무래도 남성 회원들이 기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고, 그래서 익명이기까지 한 **이곳이 유스보다 좀 더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걱정**은, 제 근거 없는 편견의 발로이기를 바랍니다...

● 댓글 2 ⇨ 공감[15.03.01. 11:33]

- 글 쓰신 분 **의견에 동감**합니다. 그리고 유스는 사직 시 회원 등급이 조정되어서 일부 게시판 글은 접근이 불가능해진다고 해요. 아무래도 민감한 사안보다 아이들 키우는 얘기, 아주머니 얘기가 많으니 감사하게도 외부의 관심이 덜하겠지만요.

● 댓글 3 ⇨ **관심 표명**[15.03.01. 21:34]

- 유스티티아는 뭔가요?;;;

● 댓글 4 ⇨ **공감**[15.03.02. 00:44]

-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, **여기에 쓰시는 글들 모두 기자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**하시면 별로 틀리지 않을 겁니다. 코트넷에 쓴 게시물들이 왜 등록되자마자 바로 언론 보도가 되겠나요. **언론인을 가족으로 둔 법원 직원, 법관들**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. **이 카페의 존재도, 이 카페에 올려진 글들도 이미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을 것**이고, 다만 그 취재 과정의 윤리성에 관한 비난 가능성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도되고 있지 않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

● 댓글 5 ⇨ **공감**[15.03.02. 07:33]

-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**판사들의 양식을 믿자..라는 건 지나치게 나이브한 생각**으로 보입니다.

▣ 자진 삭제를 예정한 게시 글 [2015.03.02. 14:10]

● 제목

- 도대체 언제부터

● 본문

- 합의부 부장이 기록 안 보는 게 당연한 게 되었나?

- **(조만간 평 예정)**

● 댓글 1 [15.03.02. 14:46]

- **평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요?**^^아울러 심심한 위로를....

● 댓글 2 [15.03.02. 15:56]

- 평 안 해도 될까요? 혹시 유출되어 판사들 근무태만 취지로 언론에 보도될까봐요.

● 댓글 3 [15.03.02. 15:37]

- 경력상향재판부가 들어서면서, 배석들 중 고참 배석들이 많아지면서, 기대치가 높아지실 수는 있지만, 그렇다고 부장님들이 기록을 안 보시는 건 그분들 스스로도 마땅한 변명거리가 없을 거 같아요.

● 댓글 4 [15.03.02. 16:02]

- 진행까지 저보고 챙기라니 제가 고등배석인지 지방배석인지 헷갈립니다. 그럴 거면 결론도 제 맘대로 내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싫으시다네요.

3. 향후 계획

▣ **오늘 중으로 게시 글에 대한 열람과 구체적인 논의·논쟁이 이어질 것임 ⇨ 추이를 예의 주시하여야 함**

● 논의·논쟁의 방향을 면밀히 관찰할 예정임

▣ **한편, 제안 글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될 것으로 보임**

● 적극적 목표 ⇨ 민감한 글에 대한 자진 삭제 문화 정착

● 소극적 목표 ⇨ 게시 글의 유출 가능성에 관하여 자각하고 지나치게 민감한 사안에 대한 무분별한 글 작성 자제 분위기 조성. 끝.